

올해 중앙공모사업 최대 확보 '정조준'

도, 국고보조사업 지자체 경쟁 공모방식 전환 확대… 공모사업 선정률 제고 위한 전략적·선제적 대응 주력
차별화·단계적 맞춤 전략 수립·체계적인 대응·철저한 사업관리 등…공모사업 최대 확보 방안 모색

전북도가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발전에 필수적인 중앙공모사업 최대 확보를 위해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최근 각 중앙부처 국고보조사업 사업 추진방식이 지자체 간 경쟁을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공모방식으로 일반화되고 있어 공모사업 선정률 제고를 위한 전략적·선제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지역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차별화된 전략 수립과 체계적인 대응,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공모사업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사업 선정 가능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전북도는 중앙공모사업 발굴·대응에 박차를 기한 결과, 역대 최대 155개 사업이 선정돼 2023년까지 총 국비 1조8,854억원을 확보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최근 5년간 선정된 중앙공모사업은, 지난 2018년에 133건, 총 국비 5,405억 원 규모에서, 2022년 155건 총 국비 1조8,854억원 규모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선정된 중앙공모사업들은 전북지역의 성장동력 필수 재원확보와 지역의 발전과 성장을 견인하는데 큰 원동력이 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올해에도 중앙공모사업의 최대 확보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사업 발굴을 추진해 1월 현재 102개 사업, 총 국비 1조1,571억원 규모의 공모사업을 발굴했다.

앞으로 2023년 부처별 주요업무계획 분석과 예산편성시기 사업설명서 등을 입수, 연간 공모사업 재원 규모 및 시기를 파악하고 신속한 등행파악을 통해 각 중앙부처 수시 공모사업을 추가로 발굴하기로 했다.

매월 발굴된 공모사업 대응 상황과 선정실적, 사업별 경점과 대응계획 등을 점검하고 사업설명회, 대면심사, 현장평가 등 단계별 맞춤형 전략과 선제적 대응을 통해 선정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방비 매칭에 대한 재정부담

을 최소화하면서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내실 있는 공모사업이 선정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정책과의 부합성, 기존 추진 사업과의 연관성 등 응모 필요성 또한 면밀히 분석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민선8期 도 정책기획관은 “정부의 정책방향이 행정의 투명성 효율성을 중요시하고 있어 향후 중앙부처 공모사업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된다”며 “각 시군·지역정책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내실 있고 의미 있는 공모사업들이 지속적으로 확대·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계묘년 설을 맞이한 지난 22일 김관영 도지사가 전주한옥마을을 방문해 시민들에게 세배를 하고 있다.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도지사 내외, 경기전 찾아 도민·귀성객들에게 건강기원 세배

김관영 도지사 내외가 도지사 취임 이후 첫 설날을 맞아 도민을 비롯해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과 함께 덕담과 세배를 나누며 행복, 건강을 기원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김관영 지사 내외는 설날인 지난 22일 오후 전주 경기전 어진박물관에서 도민·귀성객들과 어우러져 제기차기와 투호놀이, 윷놀이 등 전통놀이 한마당’을 즐겼다.

한복차림을 한 김 지사 내외는 이어

도민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세배나눔과 덕담’을 나누며 “올 한해도 도민을 잘 섬기고 ‘도전경성(挑戰竟成)’의 마음으로 새롭게 도정을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 내외는 태조어진 등 경기전을 둘러 본 뒤 한옥마을내에 위치한 승광재를 방문해 ‘황순 이석 선생’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며 차담을 나눴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지방하천 통합관리… 스마트한 관리 시스템 구축

민선8기 하천관리 혁신 위해 도입… 7억5000만원 투자·지방하천 정보 제공 위한 네이버·카카오 등 웹지도 기반

전북도는 지방하천 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하천 관련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방하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지방하천 통합관리시스템은 하천기본계획, 하천 정비현황, 편입토지 현황 등 문서 또는 파일화되어 있는 자료를 전산화해 네이버, 카카오 지도와 같이 웹지도 기반에 구현하는 시스템이다.

도내 지방하천은 459개소(2,875㎢)로 매년 1,300억원을 투자해 하천정비사업 및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그동안 정비사업 완료 후 현

황 자료는 문서 또는 파일 형태(CAD)로 관리되는 바탕에 자료 검색과 활용이 쉽지 않고, 자료 유실 등의 위험도 뒤따랐다.

또 하천 관련 민원 발생 시 네이버 지도 등을 통해 해당 지번을 확인해 하천명을 확인한 뒤 하천기본계획 또는 실시설계 보고서를 조사하는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행정력이 낭비되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전북도는 이같은 하천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지방하천 통합관리시스템’은 민선8기 김관영 도지사의 ‘틸辨别 벤치마킹’ 아이디어를 통해 발굴된 사업으로 서울시, 충남도

등이 시행 중에 있다. 도에서는 도토지정보과가 구축 종인 ‘공간정보분석시스템’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지방하천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해당 지번 검색을 통해 하천기본계획, 하천 정비현황 등 하천 정보에 대해 일괄 검색이 가능하며, 특히 민원이 많은 시유로지 편입현황에 대해 편입면적부터 편입 시유까지 신속하게 민원인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도는 2년간 7억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올해 1년도는 하천기본계획 등 지방하천 정보를 전산화해 데

이터를 구축하고, 내년도에는 웹지도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시·군에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일부 서비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홍인기 도 물통합관리과장은 “그동안 지방하천에 대한 현황·성과·편입토지 등 다양하고 방대한 자료의 관리가 어려운게 사실”이라며 “이번 지방하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하천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고, 특히 신속하고 정확한 도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효과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해양수산기업·예비창업자 모집… 내달 24일까지

해양수산창업아카데미·창업성장 활성화 지원 등 7개 분야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전북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수행기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이하 센터)를 통해 2023년에 지원받을 도내 해양수산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분야는 해양수산창업아카데미, 창업성장 활성화 지원, 신제품 개발 지원, 시장 맞춤형 퍼키지 지원, e-채널 다변화·활성화 지원, 고도화 지원, 해외시장 개척 등 7개 분야이다. 모집기간은 다음달 24일까지이며 지

업에는 각각 1~2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이와 관련 31일 도, 시·군 및 중간 기관조직과 도내 해양수산 관련 기업,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2023년도 사업모집공고 안내 및 전반적인 사업 현황에 대한 설명회를 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해양수산분야에서 실시한 지역별 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돼 2022년부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 창업 4개사, 온오프라인 판매지원으로 51개 업체에 총 24억원 매출 달성을 참여 기업의 전년 대비 21.7% 매출

성장과 101명의 신규 고용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들로 해양수산부(주관) 창업콘테스트에서도 도내 4개별을 활용한 통풍 개선 능력을 지난 유산군 소재 개발(의산, 주이노베이션아이언스, 일정목 대표)로 전북도 최초 우수상을 수여하는 쾌거를 거뒀다.

최재용 도 새민금해양수산국장은 “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 운영으로 도내 해양수산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해양수산 분야가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창업·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청소년이 행복한 전북 만들어요”

30일 ~ 내달 10일, 도 청소년단체 사업 지원 공모

전북도는 도내 청소년들의 활동·복지·보호 관련 사업 지원을 위해 2023 청소년단체 사업지원 공모를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전북에 등록돼 있으며, 청소년사업을 주목적으로 1년 이상 공의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비영리민간단체면 가능하다.

구체적 지원 대상 사업은 △청소년 활동 분야로는 수련활동, 문화활동, 교류활동, 체험활동, 경제활동교육 등이 해당되며, △청소년 복지 분야는 기출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등이다.

또한 △청소년 보호 분야는 인터넷 참고하면 된다.

제임스 스마트폰 중독 예방·치유 등 유해 환경 개선과 청소년 균형 교육, 학교폭력 예방 등이다. 지원 규모는 총 1억2,600만원이며 각 사업별로 나눠 지원된다. 공모 지원은 30일부터 2월 10일까지이며 전북도 교육협력추진단 담당 부서에 방문, 우편 접수하면 된다.

지원하는 단체는 청소년단체 지원 사업 신청서, 자기소개서, 2022년 주요사업추진실적, 2023년 주요사업 세부계획, 청소년단체 지원사업 세부계획서 및 기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시행은 전라북도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재훈 기자

전북소방, 설 연휴 1835건 상담 접수… 병·의원 안내 71%

전북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은 설 연휴 기간인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접수된 응급의료 상담은 일 평균 459건으로 작년(일 평균 441건)보다 4%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평상시 일 평균 187건에 비해 상당이 2.5배 증가한 수치다.

상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병·의원 안내는 71%였고, 약국안내 7%, 응급처치지도와 질병상담은 22%의 분포를 보였다.

/뉴스

모집	우석대학교·원광대학교 평생교육원 방학특강(1~2월)과정 모집	환경
----	--------------------------------------	----

스피치·긴장해소·시낭송·웃음코칭·면접

현대는 소통의 시대, 능력의 시대, 이미지 시대, 감성의 시대입니다. 정통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옥입니다. 현대인의 필수로 자리 잡은 본 과정에 주저하지 마세요.

저렴한 등록금으로 평생교육원에서 좋은 인맥으로 즐겁게 학습합니다.



- ▷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전담교수 및 겸임교수
 - 전북대학 토론과 면접 담당교수 역임
 - 스피치자격시험 검정위원장
 - 한국스피치, 웅변협회 전북회장
 - 전북인재교육원 및 기관, 단체 특강교수
 -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BC, TBN 출연 및 강의자
 - 스피치 칼럼리스트, 평생교육사, 스피치지도사, 시낭송지도사 등
 - 저서 “365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 말, 말” 등

* 강사 : 김정리(웃음코칭지도사, 레크지도사, 스피치지도사)와 전문강사

○ 과 목 명 : 스피치기법과 리더십(원광대), 웃음코칭(우석대)

○ 모집대상 : 대학생, 일반인 남,녀 누구나(남,녀,노,소)

○ 모집방법 : 선착순 각 25명 · 매주1회 약간수업

○ 등록방법 : ① 전화접수 ② 방문접수 ③ 팩스접수

○ 상담전화 : 231-6669, 010-7304-5665, (우석:252-9601, 원광:850-5512)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전주)
원광대학교 평생교육원(익산)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